



대법, 광주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원심 파기환송

주민들 “50년 희생했는데 더 참으라고?”

‘참을 한도’ 농촌기준 80웨클→도시기준 85웨클로 상향
배상 규모 9673명 208억→1200명 23억으로 줄어 들 듯

대법원이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박상욱)는 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 국모 씨 등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 주변 지

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NL)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참을 한도’의 기준을 소음도 80웨클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은 애초 비행장이 건립됐을 때와 달리 점차 도시화돼 인구 밀집되는 등 도시지역에 있는 대구공군비행장과 비교해 유사한 도시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음 기준을 농촌지역

이 아닌 도시지역의 공군비행장 수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그동안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산공군비행장, 총주공군비행장 등 농촌지역 비행장 주변은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대구공군비행장 등 도시지역은 85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해왔다.

재판부는 이어 “국토방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군사시설로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등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공군이 소음감소 대책을 시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도 80웨클을 소음피해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음피해 기준이 80웨클에서 85웨클로

상향조정되면 손해 배상 대상자와 배상 규모는 9673명, 208억원에서 1200여명, 23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공군비행장을 즉각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공군비행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전투비행장 이전만이 유일한 길이다”며 “전투비행장 이전과 ‘소음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피해 주민들과 연대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보와 공공성을 위해 50년 동안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사학을 재정 지원액 2725억

줄줄새는 교육재정 학생들 피해

광주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시 교육청의 재정지원액이 매년 늘면서 올해에만 2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 1) 의원은 15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교육청이 대납하면서 결국 교육 재정이 영통한 곳으로 새 바람에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시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이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은 광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액은 ▲2012년 2353억여원 ▲2013년 2528억여원 ▲2014년 2561억여원에 이어 올해는 2725억여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액이 2209억여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액이 516억

여원이었다.

반면, 사립학교 법정납부금 납부율은 ▲2012년 20.7% ▲2013년 18.7% ▲2014년 16.9% 등으로 해마다 떨어졌다. 지난해는 납부율 0%인 학교가 9곳, 10% 미만 36곳, 10~50% 미만 19곳, 50~100% 미만 2곳이었으며 완납한 학교는 5곳뿐이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 보험금 등을 위해 부담하는 경비로 학교 법인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매년 교직원 봉급 인상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늘지만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눈·밭·임야여서 수익성이 낮고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금도 줄고 있다”며 “어려운 실정이지만 수익금 운영 지도·점검과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 납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학 교수들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확산

전남대 역사 전공 19명 동참...한국근현대사학회도

정부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학자들의 선언이 잇따르는 등 역사학계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대학교 역사 전공 교수 19명은 1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사학과와 역사교육과, 문화인류고고학과 고고학 전공교수, 문화전문대학원 역사 전공 교수인 이들은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국정교과서 제작 참여 거부 선언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집필·제작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교수는 “권력자들이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

법의 하나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라고 지적한 뒤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부의 아베 정권도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만은 차마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판했다.

한국외대의 성군관대·서울시립대·중앙대 등 4개 대학 사학과 교수 29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의 집필 참여를 거부할 뿐 아니라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00여명의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근현대사학회’도 단일 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역사를 거슬러 가는 행위”라며 “학회 모든 회원은 어떤 형태든 단일 교과서 집필에 불참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남뉴스



디자인의 산업화 15일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한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은 취재진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11월 13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미국, 프랑스 등 35개국에서 출품된 300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30일 대장정...‘광주브랜딩전’ 작품 내년 상용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프레스 오픈과 개막식을 갖고 3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16면〉

11월1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35개국 작품 3000여점을 선보인다. 광주디자인센터가 새롭게 행사를 주관한 올해는 ‘디자인의 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5개관 9개 주제전으로 전시를 꾸몄다.

‘광주브랜딩전’에서는 지역업체와 세계 디자이너들이 협업한 작품이 출품됐으며, 광주시는 이번 전시 작품들을 내년에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문화가치를 알아보는 ‘아시아 디자인 허브전’에서는

각국 작가들이 디자인한 생활용품을 통해 미래 주거 공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시민 3030명이 응모한 꽃 디자인을 진시영 미디어아티스트가 허탈재 화백의 ‘백매화도’에 합성한 ‘디자인 플라워 프로젝트 : 디지털 일상의 나눔’도 이날 공개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지자체 ‘문지마 테마공원’ ▶2면

비오면 안보이는 불량차선 ▶6면

신 팔도유람-양산 천성산 ▶18면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